

6 기획-학군이 르포

경희가 함께 돌보는 고양이, 학군이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새로운 경희의 마스코트

‘학군이’는 이제 2살 남짓한 아기 고양이입니다. 2022년 봄 우리학교 서울캠퍼스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지요. 주로 오비스홀과 학군단 건물 사이에 자주 나타났고,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구성원들이 고양이를 돌보는 봉사 동아리 ‘쿠캣’에 이를 제보하면서 경희와의 인연도 시작됐고요. 학군단 관계자분들의 연락과 돌봄이 이어졌기에 이 아기 고양이의 이름도 ‘학군이’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학군단의 후보생들과 직원분들이 학군의 돌봄을 주로 맡고 있고, 투약이 필요하거나 병원에 가는 등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 쿠캣이 나서 함께 학군이를 돌보고 있습니다.

학군이가 학내에 있던 다른 고양이와 다른 점은, 근처를 지나는데 대부분의 구성원이 그 이름을 알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SNS에 학군의 사진과 소식이 자주 올라올 만큼 직접적인 교류도 잦은 편이지요. 학교 건물 바로 앞에 정해진 집이 있고, 구성원들과 매일 마주치는 활동 영역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을 크게 경계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구성원들의 남다른 관심을 불러왔습니다.

매일 마주치고,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동물이 있다는 사실은 많은 구성원에게 위로가 되고 있는 듯했습니다. 이민재(한의학 2020) 씨는 “챙겨주는 분들이 따로 있어 먹이를 주거나 쓰다듬는 일은 피하고 있지만, 학군이가 함께 길을 걸어 주거나 먼저 가까이 다가와 머리를 대는 등 일상 속에서 동물과 공존하고 교감할 수 있다는 느낌을 자주 준다”며, “학군이 덕분에 동물권이나 유기 동물에 대한 관심도 생겼다”고 전했습니다. 학군의 집 앞에서 잠깐 있는 동안에도 많은 구성원이 학군의 이름을 부르며 장난감으로 놀아주거나, 밥과 물을 챙겨주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적절한 거리’에 대한 우려도 존재해

안타깝게도 학군이를 향해 애정 어린 시선만 쏟아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구성원들은 학군이가 구성원들의 생활 환경에



학군이를 비롯한 학내 길고양이의 겨울나기를 위해 ‘쿠캣’ 동아리원들이 활동 중인 모습

(사진=쿠캣 제공)

들어오는 것에 대해 우려의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지난 26일, 익명 게시판에서 화제가 된 한 글에는 교실에 들어온 학군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귀엽다는 반응과 함께, 절반이 넘는 댓글에는 길고양이를 통해 야기될 수 있는 질병에 대한 우려와 적절한 거리 유지를 바라는 의견이 적혀 있었습니다. 고양이의 돌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이와 같은 상황이 우려되긴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을 지나

구성원들이 필요 이상의 간식을 주어 실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길고양이에게 염분이 많은 참치캔이나 간식은 물론 치아 건강까지 해칠 수 있다고 합니다. 사람을 경계하지 않는 학군의 특성상 학내에도 쉽게 노출될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실제로 2019년 4월, 국민대학교 구성원들이 함께 돌보던 고양이 ‘유자’가 사료에 섞인 독극물을 먹고 세상을 떠났고, 2020년에는 한동대학교 내 고양이들이

잇달아 죽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쿠캣의 한 회원은 “날이 추워지면서 학군이가 교실이나 학교 공간에 들어서는 일이 많아졌고, 길고양이를 싫어하거나 털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의 경우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우려된다”고 전했습니다.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필요해

이제는 학군이를 단순히 귀엽게 여기는 일을 넘어, 공존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이 구성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보입니다. 학내의 길고양이들이 구성원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행히 학군은 쿠캣이 돌보고 있는 대부분의 고양이처럼 TNR을 마쳤고, 울음소리나 쓰레기를 뒤지는 등 불편을 줄 수 있는 행동도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TNR은 ‘Trap-Neuter-Release’의 준말로, 길고양이를 포획해 중성화 수술을 한 후 예방접종 등의 과정을 거쳐 다시 방생하는 활동을 말하지요. 고양이에게 침습적인 행위가 될 수 있어 일부 논란이 있지만, 고양이가 우는 빈도를 줄여주고 개체 수 조절에도 효과적이라 최선의 대안이라는 평이 지배적입니다. 길고양이를 단순 포획할 경우, 빠르게 번식하고 영역을 인식하는 고양이의 특성상 새로운 개체가 자리 잡아 개체 수에는 큰 변화가 없게 됩니다. 쿠캣 등의 단체가 진행하고 있는 길고양이 돌봄은 단순한 보호를 넘어 사람과의 공존을 고려한 활동인 것입니다.

겨울을 날 수 있는 집을 마련해주는 것도 구성원과 적절한 거리를 두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고양이 등의 소동물을 주로 진료하고 있는 신호원 수의사는 “날이 추워 일부 고양이들이 건물 주변에 모여들 수 있지만, 더 따뜻하고 안전한 공간이 있다면 실내로 들어오는 횟수는 당연히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 쿠캣을 비롯해 각 캠퍼스에서 진행되고 있는 길고양이 돌봄 활동은 길고양이의 생태를 자세히 이해하고 사람과 동물의 공간을 적절히 분배하는 과정에 가깝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처음 쿠캣의 활동을 지원했던 동물보호단체 ‘카라’는 2019년 대학 길고양이 돌봄 사업을 마무리하며 “길고양이 혐오는 길고양이 생태에 대한 무지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때문에 오해를 바로잡아 길고양이 돌봄이야말로 오히려 가장 쉬운 공존 방법임을 알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길고양이 돌봄을 통해 “학내에서도, 나아가 학교 주변과 지역사회까지 지속적인 동물권 인식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지요. 쿠캣의 한 회원 역시 “학군이에 대한 구성원들의 관심과 사랑이 반갑다”면서도, “길고양이들과 오래 공존하며 서로에게 고마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이해와 적절한 관심이 동시에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